

사랑은 ‘지키는 것’(protecting)이다.

성 경 본 문	마태복음 22:34~40
요 절	“...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39절, 새번역).
찬 송	563장(통 411, 예수 사랑하심은)
이 과의 목표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사랑에 대한 오해가 무엇 인지를 깨닫고, 참되고 건강한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한다.



I. 생각하기

1. 사랑을 꼭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II. 생각 넓히기

1. 사랑에 대한 오해

사랑은 인간이 존재하는 시작이며 완성이다.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람은 사랑이 없는 시공간을 한시라도 살 수 없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절망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까닭이다. 한글 ‘사람’과 ‘사랑’이라는 단어들 사이에 자음 ‘ㅍ’과 ‘ㅇ’의 차이밖에 없는 것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동일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옛사람들에 의해 ‘사람’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여겨졌던 모양이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사랑이 인간의 시작과 완성임에 틀림없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무렵에 사람들은 율법을 강조하며 차별을 일삼았다. 그래서일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마 22:36, 새번역).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37-38절, 새번역)라고 대답하셨다. 말씀을 듣고 있던 율법사와 비호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을 것이다. ‘그 정도쯤이야, 나도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했을 터다. 그들의 속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예수님은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39절, 새번역)라고 일침을 가하셨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율법이었으나, 사람들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부분만 슬그머니 빼고 살았던 탓이다. 마치 그런 말씀이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왜 둘째 계명을 그렇게 어려워할까? 아마 사랑을 조건부로,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일종의 ‘선택적 감정’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니라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무언가 행동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일지도 모른다. 사실 이웃 사랑은 내 안의 경계를 넘어야 가능하다. 이를테면 “나는 옳고 타인은 틀려”라는 고정관념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하여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부딪히기 쉬운 장애물 하나를 꼽는다면, 아마 이 둘째 계명일 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모두에게 다 잘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모두에게 친절하고 완벽하게 대해야만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희생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성격과 역할, 감당할 수 있는 한계도 다르다는 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낸 제품처럼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듯, 사랑의 범위와 방식 또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양육한 제자들조차 성격도, 은사도, 사역도 제각각이 아니었던가. 그러니 ‘모두에게 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사랑을 왜곡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셨을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정 고통스럽고 벅찬 일일까?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 보라.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 순하게 말하고 또 시도하지만, 정작 “사랑은 너무 힘들다”라고 울먹인다.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랑 자체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오해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 만든 ‘완벽한 사랑’이라는 울무에 걸려 버린 것은 아닐까 싶다.

2. 사랑에 대한 재조명

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는 그의 책 <황홀한 글 감옥>에서 셰익스피어의 말을 회상하며 적었다. 아무리 대단한 작가일지라도 작품마다 모든 독자들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오롯이 소수의 독자라도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인도(India)와 바꾸지 않겠다던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도 모든 독자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데, ‘모두에게 잘해야만 한다’는 생각은 사람들에게 괴리감만 줄 뿐이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여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오르지도 못할 절벽을 오르라고, 혹은 빈번한 실패로 인한 열패감을 느끼라고 강압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마 23:3, 새번역)라는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의도는 둘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일깨우신 것이다. 그러니 ‘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에서 고개를 숙이기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을 ‘하라(do)’라고 역설하신 적이 있다. “누가 네 오른 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네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 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 리를 같이 가 주어라.”(마 5:5:39-41, 새번역). 겉으로 보면 분명히 행동하라는 명령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단순한 행위를 넘어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이 앞 구절을 보면 더욱 분명하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값이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38-39절, 새번역). 예수님은 복수와 보복의 논리에 매인 고대 율법의 사고방식을 꾸짖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라’(do)라고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핵심은 ‘행동’(doing) 보다 ‘지킴’(protecting)에 더 가깝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마 7:1, 새번역)라는 말씀처럼, 사랑은 먼저 내 안의 말과 태도,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마 5:22)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다. 이처럼 말씀을 곱씹다 보면, 사랑은 ‘행동’(doing)의 문제라기보다, 마음을 지켜내는(protecting) 신실함의 문제임을 깨닫는다. 결국 사랑은 어떤 거대한 희생이나 완벽한 도덕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타인을 향하여 비판과 분노를 삼가고, 내 안의 온유함과 자비를 지켜내는 일이 곧 진정한 사랑이다. 하여 사랑은 내 마음을 지키고, 타인의 가치를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바라보아야 할 사랑에 대한 재조명이다.

3. 사랑을 지키는 훈련

고린도전서 13:4-7절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새번역). 언뜻 보기에는 사랑이 행동(doing)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킴’(protecting)의 의미가 깊게 스며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은 단순히 행하는 일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과 감정, 말과 태도를 지켜내는 것이다.

지키는 사랑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착한 아이 증후군’을 극복해야 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야만 한다,” “내가 잘해 줘야만 사랑받는다”라는 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대개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불안한 애착 관계나 정서적 거절감(emotional cutoff)에서 비롯된다. 그들은 사랑을 조건적인 허용, 과도한 책임, 혹은 억지스러운 희생으로 여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자기애 회복 훈련’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때로는 “아니요”라고 거절할 용기가 사랑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억눌린 사랑,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은 결국 관계를 더욱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자기애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 받은 가치로운 존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스스로를 존귀히 여길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을 깨달아 배우게 된다. 스바냐 3:17절 말씀을 기억하자. “...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며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되뇌어 보자.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되뇌임의 선포가 ‘참 나’를 만나도록 도울 것이며, 타인의 눈과 기대에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됨을 알게 될 것이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둘째, 건강한 경계(boundary)를 세워야 한다. 사람들은 매일 사랑을 하면서도, 왜 이리도 사랑이 힘들냐고 구시렁을 한다.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건강하게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족에게 필요한 사랑은 헌신이지만, 이웃에게 필요한 사랑은 존중과 거리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둘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려는 실수를 범한다. 그 결과 사랑은 무거운 짐이 되고, 영육 간에 지치고 무기력해진다. 건강한 경계는 냉정함이 아니라 존중의 표현이다. 상대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려는 태도이다.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타인에게 잘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타인의 경계도 존중하라는 의미이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며, 외려 사랑이 타인에게 흐를 수 있는 건강한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은 편견과 비판,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는 자유로움이다. 어쩌면 거룩한 거리를 지키는 품격 있는 존중일 것이다. 사랑의 훈련은 가족과 타인 사이의 거룩한 경계를 이해하고 지켜내는 연습인 셈이다.



셋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한다.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의 사랑도 왜곡되고 비틀어진다. 그때 사랑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되고, 관계는 엉키며 상처로 남는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질 때,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넘친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의 생명력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랑은 더 이상 억지가 아닌 자유로, 노력보다 은혜로 흘러나오게 된다. 그럴 때 침묵이 사랑이 되고, 절제가 사랑이 되며, 품격을 지키는 것이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 된다. ‘하는 사랑’만큼이나 ‘지키는 사랑’이 중요하다. 지키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인격을 닮아가는 성숙한 길이 될 것이다.



Ⅲ. 생각살기

1. 당신 자신과 타인을 건강하게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습관이나 상황은 무엇인가요? 그 방해 요소를 줄이면서 ‘지키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 우리 주변에 특별히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소그룹이 그 사람에게 지키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